

### 3차과제 (형용사) 의견서

조이름	작품명	이름	이미지	질문이나 전하고 싶은 말
S2	자유로운	염은비		<p>영상은 잘 봤습니다! 다만 영상의 옥의 티는 일렉 기타 선이 연결 되어 있지 않은 점입니다 처음 봤을 때 한번에 이해되지 않는 게 조금 아쉬웠고 꿈을 표현하려고 했으면 현실에서 꿈으로 바뀌는 어떤 연출이 있었다면 좋았을 것 같다.</p> <p>자유보다는 과거를 추억하는듯한, 과거를 생각하며 슬퍼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는데 의도한 것인지 궁금하다. 해석의 다양성이 열려 있는 좋은 영상이지만 배우의 과거와 현재가 잘 인식이 되지는 않았습다.</p> <p>영화 &lt;린다 린다 린다&gt;가 연상되었습니다. 다만 시각적 표현 측면에서는 조금 더 보완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부분에서 주인공 자유가 원래 정장을 입고 있었는데, 문밖으로 나가자 의상이 교복으로 바뀌는 점이 좋았습니다. 마치 과거로 돌아간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p> <p>후시늉음이 있었던 씬이 가장 아쉬웠습니다. 마지막에 자기자신으로 귀결되는 내용이 좋았습니다</p> <p>저는 보면서 찾아 온 존재가 과거의 자신일 것 같다는 생각을 하긴 했으나, 모든 관객이 그렇게 느끼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마지막에 이름을 부르는 것보다는 명찰을 보여주는 게 조금 더 좋았을 것 같다는 개인적인 의견을 남깁니다! 화면의 색상과 음악 사용이 기억 속 분위기를 떠올리게 해서 인상 깊었습니다. 과거의 나와 함께 노는 것이 신선하고 좋았습니다.</p>
찍어보조	어색한	박가빈		<p>라디오에서 DJ와 PD의 관계라는 소재를 선택한 점이 인상적이다. 시침하며 진 연인 관계인 둘 사이의 어색한 감정이 배우의 연기를 통해 잘 전달되었다.</p> <p>이야기의 흐름이 자연스럽지만, 촬영 구도가 다소 어색한 부분이 존재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아쉬운 영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log 촬영을 한 것 같았는데, 후반 작업에서 아쉬움이 좀 있었습다. 그리고 이별한 여자가 느끼는 마음들에 대한 앵글이 최신이었을까? 하는 생각이 영상을 보는 내내 들었습니다. 열린결말의 느낌으로 남았는데, 관객한테 해석의 여지를 주는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p> <p>영상 잘 봤습니다! 개인적으로 남자의 연기가 살짝 어색하게 느껴져서 두 사람의 관계가 헤어져서 두 사람의 관계가 헤어져서 연인인지 살짝 헷갈렸던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의 어색하고 불편한 분위기는 잘 전달된 것 같습니다! 방송 대화를 활용해서 인물의 감정을 표현한 부분이 기억에 남았습니다. 촬영 무빙이 너무 좋았습니다. 주제가 흥미로웠습니다</p>
남정네들	짜증난	송대근		<p>대학생이라면 한 번쯤은 겪어보았을 만한, 공감할 수 있을 만한 내용으로 이해가 잘 되었다. 짜증나고 억울한 감정이 들었다.</p> <p>이야기 내용이 형용사를 잘 표현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교수님 음성이 나와서 위트있게 잘 끝낸 영상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영상 연출은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만 촬영이 구도와 앵글적인 부분에서 좀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p> <p>화장실 촬영실에서 로케 확보가 조금더 매끄러웠다면 액팅 등이 훨씬 자연스러워보였을 것 같아요 수업시간에 제가 '명칭'이라는 형용사를 생각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수업휴강 공지를 못 보고 그냥 등교를 하고 무를 부양하는 것 뿐만 아니라 에어팟을 낀 상태에서 에어팟을 찾는 등의 행위에서 그러한 점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짜증나는 감정보다는 우스움, 어리석음, 멍청함 등의 형용사를 떠올렸던 것 같습니다! 소재 자체가 재미있고 익숙해서 이야기에 더 몰입하게 되었습니다.</p> <p>교수님에 음성을 요청한 치밀함과 짧은 작품 속 개그 포인트를 잘 잡은 부분이 인상깊었습니다. 영상이 전체적으로 어두운거 같아 조금 아쉬운거 같습니다. 재밌었습니다! 공감이 많이 가는 작품이었다.</p>
periwinkle	어려운	김성민		<p>남자 배우가 연기를 잘 하는 것 같다. 요즘 학생들이 공감할 만한 이야기를 전달해 좋았다.</p> <p>영상의 흐름은 자연스럽지만 학생의 어려움이 잘 느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렵다는 형용사를 처음부터 캐치했을 정도로 이번 과제의 주제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신 테가 나는 영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p> <p>본인의 경험에 빚어 영상을 촬영하게 인상 깊었습니다 영상 너무 잘 봤습니다! 주인공 학생이 질문하길 꺼리다가 질문을 하려고 마음을 바꾸게 되는 동기가 살짝 부족하다고 느끼긴했으나 전체적으로 이야기 전달도 잘 되고 흥미롭게 봤던 영상이었습니다. 강사님(?) 구도가 조금 아쉬운거 같습니다.</p>
팔색조	공허한	오정훈		<p>영상에서 남주가 여주를 찾아다닐 때 큰 초록 밭에서 여주가 미니머처럼 보인 점이 흥미를 돋군 것 같습니다 공허한 마음이 잘 전달되었다. 음악과 여자 배우의 의상 및 메이크업으로 스산한 분위기를 표현한 점이 인상적이었다.</p> <p>영상의 전체적인 스산함이 잘 느껴지는 영상이지만, 이야기의 구성이 다소 아쉽게 느껴졌습니다. 구도가 특이한 맛이 많아서 잘 봤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싹한, 그리고 스산한 분위기를 띄게 잘 연출했습니다</p> <p>전체적으로 신비로운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어서 다음 전개가 궁금했습니다. 짧은 영상 안에서 분위기가 후속 바뀌고 바뀌고 나서도 그 톤을 잘 유지하며 진행한 부분이 인상 깊었습니다. 대사가 잘 안 들려서 아쉬운거 같습니다.</p>
팔색조	무서운	김성지		<p>저도 전화 공포증이 조금 있는 편이라 공감하며 영상을 시청했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겪고 있는 'call phobia'를 주제로 선택한 점이 인상적이었다. 현상을 포착해 영상의 주제로 담은 점이 인상적이다.</p> <p>영상의 주제가 잘 느껴지고 이야기 흐름도 자연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무서운'보다 '부끄러운'이나, 두려움 같은 형용사가 더 어울리는 영상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초반의 코믹한 연출은 잘 봤습니다.</p> <p>요즘 세대에 전화를 피하는 사람들을 유쾌하게 풀어냈길 같아서 재밌게 봤습니다 관객이 봐야 하는 부분을 체계적으로 정해서 샷들을 타이밍하게 잘 구성한 것 같아 보기 편하고 좋았습니다. 구도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던거 같습니다. 마지막 반전에 대해 미리 암시를 주는 설정이 좋았다.</p>
QAS	이끌리는	최지수		<p>어떠한 큰 때문에 억압당한 여인인데 저의 시점으로 봤을 때는 그냥 춤을 추고 싶어서 추는 여인으로 보여졌습니다. 뺨간구두 모티프를 사용한 점이 흥미로웠고, 뺨간 구두로 인해 죽을 때 까지 춤을 추게 되는 원작을 떠올렸을 때는 무서운 이야기인줄 알았는데 감아지로 인한 이야기라는 것을 알았을 때 재미있었다.</p> <p>창의적인 영상이었지만 여성이 기이한 춤을 추고 하는 행위가 개인적으로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다. 굉장히 실험적인 영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앵글이 특이하고, 또 여자의 무용 동작 또한 괴이하지만, 매력적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의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감독님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p> <p>실험적인 영상이었고, 끈의 색 구두의 색 등 색이라는 요소도 그에 걸맞게 영상으로 봤을 때 잘 사용된 것 같았습니다 어떤 형용사를 생각하고 제작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산책을 하던 중 줄이 몸에 감기고, 이걸 푸는 과정을 마치 발레를 하는 듯 느껴졌다는 발상이 참신했던 것 같습니다! 또 화면비도 독특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양 옆을 차단함으로써 움직이는 인물이 더 집중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p> <p>대사보다 몸짓으로 이야기를 표현하는 방식이 독특해서 인상적이었습니다. 마지막에 이유가 밝혀지면서 더 이해할 수 있었고, 강아지가 귀여워서 기억에 남았습니다. 아름다운 구성을 위한 화면비 선택과 구두 편집을 통해 궁금증을 잘 만들고 마지막에 정보를 주면서 해소하는 과정이 인상깊었습니다. 다른 조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진행(?)하셔서 너무 독특하고 좋았습니다. 실험적이었지만 성공적이었습니다 클로즈업 장면을 어떤 의도로 넣었는지 궁금합니다.</p>

조이름	작품명	이름	이미지	질문이나 전하고 싶은 말
unfinished pieces	흔들린	조아적		<p>둘의 관계가 틀어지게 된 이유가 납득되지 않습니다 감정의 변화를 따라가기 힘들다 친구와 멀어지는 관계를 표현함에 있어, 그 원인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 것 같아 아쉬웠다. 다만, 생일파티라는 소재와 화해하는 장면은 좋았다. 영상의 인물관계 설정이 잘 파악이 되지 않았습니다. 우정의 애매함이 작품 안에서 잘 드러난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만 켈리타적인 부분에서 아쉬움이 느껴집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p> <p>주인공끼리 싸운 이유가 조금 납득하기에는 매끄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두 인물이 갈등하는 이유, 주인공(생일자)가 친구에게 사과하기로 마음 먹은 이유 등 인물의 감정에 몰입하기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인물의 감정선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줬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거 같아 아쉬웠습니다.</p>
마감조	기울어진	성소윤		<p>너무 잘 만들어지는, 보는 재미도, 이야기 해석력도 너무 다 좋았던 작품인 것 같습니다.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이 있는 영상이지만 저는 여자가 남자에게 서운해한다는 감정이 가장 크게 느껴졌습니다. 정말 잘 만든 작품인 것 같습니다 영화같은 영상이었습니다!! 영상 잘 봤습니다! 우선 이야기가 매끄럽게 전개되면서 관객들이 여자 주인공에 자연스럽게 몰입할 수 있었던 영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자가 남자에게 손을 맞대며 반지가 나오는 장면에서 약간의 어색함을 느꼈었는데, 여자가 남자의 손 위에 손을 올리고 가만히 있는 장면이 오래 노출되어 인위적이라고 느꼈던 것 같습니다. 일부러 이 장면은 관객이 관찰할 수 있도록 조금 오래 보여주었다고 말씀해주셨는데 우선 화면 상으로 반지에 차이가 있는 것이 잘 보이지 않아서 이렇게 느낀 것 같습니다. 여자가 남자의 손 위에 손을 올리고 특특 친다거나 약간 흔들는 등의 행위를 했어도 좋았을 것 같습니다. 짧은 시간 내에 관객이 몰입할 수 있는 이야기를 잘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여자 주인공의 클로즈업 장면이 인상 깊었습니다. 감정을 직접 설명하기보다 관객이 인물의 감정과 상황을 함께 생각할 수 있는 여백을 남겨준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색감이나 구도가 너무 좋았습니다. 둘이 놀이터에서 앉아 있을 때 둘의 관계가 수평이 아니고 여자가 아래 있고 남자가 위에 있는 설정을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남주와 여주 사이는 수평이 아닌 관계로 느껴졌다.</p>
상호상조	가식적인	인지혜		<p>마지막에 가식적인 사람에게 연락을 받고도 고치지 않고 또 다른 가식적인 하루를 만들어 나가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요즘 인스타그램을 포함한 SNS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현실과 꾸며진 모습에 대한 혼동으로 겪는 감정을 잘 담은 것 같다. 브이로그 형식이 좋았다. 참신한 주제였고 영상의 이야기도 좋았지만 앞 부분 여성의 망상 부분이 조금 길게 느껴졌습니다. 요즘 사회에 대한 내용이 신선했습니다! 편집이 아쉬웠습니다. 컷이 튀어 콘티뉴이티가 많이 어지럽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동시녹음을 간단하라도 (휴대폰 녹음기라도) 했다면 사운드도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 시대에 되게 걸맞는 이야기라고 느꼈고, 촬영구도가 되게 세련되었다고 느꼈습니다. 그저 브이로그를 찍는 유투버의 일상을 보여주는 영상인 줄 알았는데, 이것이 모두 ai로 제작된 영상이었고, 남들이 ai를 사용하는 사진을 보고 자신은 티가 나지 않도록 오히려 더 많이 ai에 의존하게 되는 이야기라는 걸 깨달고 주제가 매우 참신하다고 느꼈습니다! 작품을 보면서 현대인의 외로움이 자연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이야기 구조가 매우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속이는 입장에서 속임 당하는 입장이 되고 나아가 자신과 같은 처지의 사람을 대하는 마치 자신이 자신을 바라보는 듯한 아이러니한 상황, 치밀하게 짜여진 구조라 인상 깊었습니다.</p>
unfinished pieces	섬뜩한	진지완		<p>섬뜩함을 표현하기 위해 카메라가 계속 흔들리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영상 내내 흔들려 볼 때 집중을 흐뜨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음악으로 섬뜩함을 표현하신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에 비해 상대적으로 남주가 여주를 지켜본다는 설명이 영상에서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여주를 몰래 바라보는 장면을 넣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남주의 시선이 없는 영상에서는 남주가 무당이어서 여자에게 뭐가 필요인지 어디가 아픈지 유추할 수도 있는 것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CCTV로 스토킹을 하는 장면을 연출한 점이 소름끼치면서 무섭게 다가왔다. 이야기가 흥미롭다. Cctv로 바라보는 듯한 연출은 좋았지만 영상의 길이가 짧은 탓인지 개인적으로 스토커라는 남성의 역할이 미묘하게 느껴졌습니다. 스토커가 너무 단조로우 조금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실제 주변에서 있을법한 스토커라 흥미롭게 보았지만, 이 말은 사실 흔하다는 말과도 같다고 생각합니다. 창의성 부분에서 아쉬웠습니다. 섬뜩한 느낌이 잘 들었습니다. 누군가 날 지켜본다는 느낌이 잘 들었던 것 같습니다 cctv 장면이 나오면서 관객이 여자가 느끼는 공포를 같이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영상 잘 봤습니다! 의도인지 모르겠으나 화면이 너무 흔들리고 대사가 잘 안 들려서(잡음이 너무 심해서) 아쉬운거 같습니다. 창의적이었으면 좋겠습니다</p>
세븐틴	시끄러운	맹소경		<p>사운드 활용이 아쉽고, 주변 소음 때문에 과제하기가 싫은 여학생으로 보여지기보다는 마음의 병, 혹은 어디가 아픈 사람처럼 보여지기도 하네요 여성의 감정은 이해가 가능하지만 이야기가 다소 부자연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정신적인 문제는 매우 흥미로운 탐구의 대상이지만, 많은 경우 사람과 사람이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주인공의 억압감과 불안감을 관객에게 전달하는 일 또한 쉽지 않다. 그렇기에 이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카페 댓글에도 남겨드렸지만, 특이한 연출을 많이 도전하신 것 같아 잘 봤습니다! 이야기구성이 조금 아쉽긴 했습니다. 소음에 지친 여자가 이를 피해 공원으로 가는데, 가서도 다시 주변 소음을 차단하는 기능을 하는 이어폰을 착용하는 것이 약간 주제에 맞지 않다고 느껴졌습니다. 보면서 인물의 감정이 어떤지 약간 알 수 없었고, 계속 추측하면서 보게 되었던 영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주인공의 불안하고 답답한 내면이 잘 느껴졌고, 일상 속 소음이 이미 지쳐 있는 마음을 더 흐드는 모습이 공감되었습니다. 시끄러워서 한강으로 갔는데 다시 이어폰을 끼는게 조금 모순적인거 같아 아쉬웠습니다.</p>